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최선'

장수군-LH,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시행 협약 체결

장수군이 2027년 말 공급을 목표로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올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15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맞춤형 주택으로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저층부에 복지시설, 고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된 고령자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장수군은 복지시설에 고령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여 고품격이 높은 장수군의 어르신 복지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계남면 호더리 일원에 통합공공임대 80세대와 복지시설 등 연면적 4,500㎡ 규모로 사업비 448



장수군은 올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15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했다.

억원이 투입되며, 내년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 착공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통해 지역의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공간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도로·지하시설물·행정정보 쉽게 확인 가능

무주군은 지난 5일부터 주민들의 생활정보를 집대성한 무주군 공간정보시스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해 말 '무주군 공간정보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부터 도로, 상·하수도 및 가스, 전기, 통신 등 데이터 탑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주소정보관리시스템·연속지적도·연속주제도 연계, 항공영상·최신 수치지형도 탑재 등을 완료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전 부서가 공동 활용 가능한 다양한 행정정보(도로명 주소, 연속지적도, 건축·부동산정보 등)를 연계 및 통합하여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공간정보 활용서비스, 도로·상수·하수시설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대장,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부동산 정보의 물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반, 도로명 주소, 건물 위치 등 생활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도별 항공사진을 탑재함으로써 특정지역의 위성영상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군은 유지보수 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무주군 공간정보시스템을 무료로 구축함으로써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향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인삼·홍삼 발효기술 특허출원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는 15일 인삼 및 홍삼 소비촉진을 기대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발효기술개발을 확립하였다고 밝혔다.

진안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한 발효기술은 황국균을 활용한 인삼과 홍삼 그리고 쌀을 이용한 천연 발효효소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발효식품소재제조기술이다.

기존 쌀코지와는 다르게 인삼과 함께 발효하였을 때 당화효소, 전분분해력 등 각종 효소활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진안홍삼연구소에서는 추후 인삼 및 홍삼을 활용한 발효감주, 발효모주, 발효선식, 발효식

초, 디저트 등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발효식품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된 기술은 특허출원하였으며, 추후 판매 희망기술이전업체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

김태영 소장은 "이번 발표된 기술은 인삼뿐만 아니라 쌀소비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식품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발효식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진안만의 인삼과 홍삼을 활용한 발효기술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백운면 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개소

개소식·어르신 한마당 행사 가져... 다양한 노인돌봄사업 추진

진안군 백운면(면장 곽동원)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 이남근, 이하 돌봄조합)이 전춘성 군수,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특히 돌봄조합 현관을 걸차마자 어르신 한마당 행사를 통해 참여 어르신과 음식을 나누고 노래교실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돌입했으며, 관련 비용 일체를 돌봄조합이 부담했다.

돌봄조합은 지난 7월 1일 조합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이후 조합원이 계속 늘어 10월

에 보건복지부의 설립인가를 받는 시점에는 90명이 넘는 지역주민이 동참하고 있다.

돌봄조합은 구 백운농협 2층에 사무실을 두고 향후 환구를 문화센터와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인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개소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돌봄조합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욕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어르신이 거주지 내에서 서비스를 이

용하는 주민주도 지역통합돌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봉현 백운면 노인회장은 "농촌에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배움의 기회를 갖고,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좋다. 또한,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노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남근 돌봄조합 이사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어른들이 존중받고 공경받는 백운면이 되는 일에 백운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틀을 다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군' 만든다

무주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 지원 정책 확대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축하금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무주군 임신축하지원금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17일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임신축하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라면 신

청 자격이 주어지고,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출생증명서를 구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50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 또는 무주사랑카드도 지급된다.

한편, 무주군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장수군, 학술·정책 연구용역 조정회의 개최

장수군은 15일 이종훈 부군수 주재로 22년/23년 학술·정책 연구용역 조정회의를 개최해 2022년 정책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정리하고 2023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군에서 추진 중/추진 예정인 학술·정책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용역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 참석한 부서장들은 2022년 추진 중인 학술·정책 연구용역의 취지와 주요 과업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2023년 학술·정책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훈 부군수는 "학술·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은 우리 군민 모두의 공공재인 만큼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군민의 접근성·활용성을 개선하고 예산 투명도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보급종 '선풍공' 올해도 전량 정부 구매

진안군은 15일 진안단지에서 생산한 정부 보급종 '선풍공'을 국립종자원에서 전량 구매했다.

군은 올해 진안읍·마령면 일대 18ha를 국립종자원과 종자생산대행 30.7톤 계약을 맺고, 원종을 무상공급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맞춤형 현장컨설팅, 병해충 일제방제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두류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번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물량은 60여톤으로 구매검사를 합격한 종자에 대해 전량 구매를 하였다. 또한 국립종자원에서 정부약정 구매값이(1등 기준) 정해지는데도 20%의 생산장려금을 더해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단지 대표 문용호는 "전년 대비 수확량이 감소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관행재배 대비 20%이상 높은 수확량을 보였다. 특히 수확 후 관리기술 도입으로 정선작업의 일관화가 가능해져 농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